UTM 복합 위협요소 '한방에 해결'

<통합위협관리>

지난달 말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보호 기업인 시큐어컴퓨팅이 이베로스의 세일즈 및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비롯해 3명의 본사 임원을 한국에 보냈다. 이들의 방한은 지난 2월 출시한 UTM 신제품의 출전계약을 체결하고 UTM의 효용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당시 시큐어컴퓨팅 임원은 "UTM은 방화벽, 안티 바이러스 등 여러 보안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 관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총소유비용(TCO)을 줄이는 이점으로 인해 관련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과 일주일 뒤에는 워치가드테크놀로지스의 아태팀 총괄 부사장이 방한해 UTM 신제품을 발표하고 "신제품이 그동안 한국시장에서 워치가드가 제공하지 못했던 대규모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고성능이면서 가격대로 한국의 네트워크 상황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외 정보보호 기업 임원들의 잇따른 방한은 한국 정보보호 시장, 특히 한국의 UTM 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대변한다. 또 이들은 기대감에는 한낱 일시 한국의 UTM 시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성격도 지녀왔고 있다. 포티넷은 KT와 데이콤을 통한 자가형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서비스 형태 단일에 2008년부터 UTM 제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려 다른 정보보호 기업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최근 정보보호 업계의 화두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UTM은 방화벽, 가상사설망(VPN), 침입방지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IPS), 안티 바이러스, 관리 스팸과 같은 다양한 보안 기능을 단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구성해 관리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복합적인 위협 요소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통합보안솔루션으로 평가할 수 있다.

UTM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장비를 도입할 때의 비교해 설치가 매우 쉬울 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 개별 보안 솔루션을 무력화시켜 만들 수 있는 혼합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UTM의 장점 중 하나다. 방화벽, VPN, IPS,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등을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보안지식이 필요하지만, UTM은 이같은 부담이 적다는 것도 이점이다.

방화벽·VPN·IPS·안티스팸 기능

단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구성

관리 편하고 총소유비용 절감 효과

중기 대상 저가형 임대서비스 공략

이같은 이점을 근거로 한국IDC는 한국시장에서 UTM 수요가 급증해 오는 2008년 UTM의 국내 보안 어플라이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전통군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값비싼 기능을 탑재하는 주제를 놓아주고 있는 UTM의 보안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쟁업체 제품과 비용부담으로 쉽게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등에게 관련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 발 늦게 관심시장에 뛰어든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도 UTM 개념을 적용한 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스템이 지난 해 IPS 기능 외에 VPN, 방화벽, 바이러스월, IP관리 등 다양한 보안기능을 장착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시큐웍이게이트 유니 시리즈' 등 4종의 UTM 제품을 선보였다.

이 회사는 또 UTM의 주요 구성요소인 중소기업을 공략하기 위해 매우 저렴한 임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대 서비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존의 관제 서비스와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큐아이닷컴이 지난해 기존 IPS에 다양한 보안기능을 추가해 UTM 개념을 표방한 제품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네트웍이 안티 바이러스 기업인 안랩수연구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등 보다 기술을 앞세워 연초에 UTM 개념의 통합보안 어플라이언스를 선보이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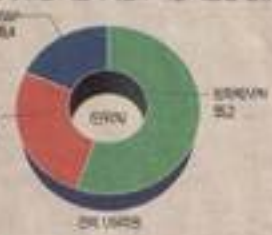
그러나 UTM이 정보보호 시장에서 보다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UTM은 한가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품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각각의 개별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개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많은 벤더들이 중견기업 이상에 시스템에도 적합한 고성능 UTM을 새롭고 있지만, 최소한 국내에서는 아직 충분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을 경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UTM에 포함해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선택을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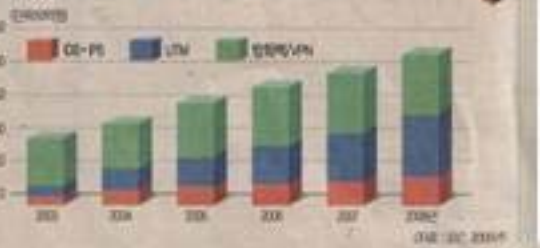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안기능의 성능 및 연동 강화와 안정성 확보, 그리고 보다 편리하고 개별 기능 모듈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시기자/kimdongsi@

■ 국내 보안 어플라이언스 시장 제품별 점유율, 2004년 (추정치)



■ 국내 보안 어플라이언스 시장 전망, 2003~2008년



(자료 : 한국IDC, 2004년)

2008년 보안시장 주류로 부상할듯

한국IDC, UTM 점유율 44% 전망

향후 정보보호 시장에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인 전문가들은 IT 예산 삭감에 의해 보안분야의 성장률이 둔화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보안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현재 제품 성능 기업 CEO들의 주도 선결과제로 보안을 꼽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IT 시장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IDC는 보안분야 중 소프트웨어보다는 어플라이언스, 특히 UTM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I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3년에 비해 3.2% 성장한 1,861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오는 2008년까지 연평균 13.5%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해 1년여 동 규모로 추산되는 보안 어플라이언스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7.1%를 기록해 SW 분야의 성장성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보안 분야의 주요관심 상황 가운데서 속도나 성능 면에서 이점이 있는 한 어플라이언스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SW에서 중점한 주요 기업들도 자사 SW에 최적화된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출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보안 어플라이언스가 향후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한국IDC는 2007년을 대략 보안제품과 보다가 어플라이언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IDC는 어플라이언스 중 특히 UTM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단일 플랫폼에서 방화벽, VPN, IDS 및 IPS, 안티 바이러스, 웹 콘텐츠 필터링을 제공하는 UTM가 2004년 3월의 시장 이용을 가지면 대 이어 시장의 편리함과 경제성 등을 앞세워 향후 큰 폭의 성장을 이뤄 오는 2008년경 44%의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한국IDC의 예측이다.

똑똑해지고 속도도 향상 '제2 전성기'

이상현상 탐지·IPS연동기술 등 기능 강화

보안위협 정밀분석…능동적 통제·제어도

IPS와 ESM은 과거 일부의 사이버 침입 이전에 이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는 점과 DDoS 등 정보보호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보호 기술 중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은 분야다. 그러나 IPS는 일부 침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함께 네트워크 병목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ESM은 로그관리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 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IPS와 ESM 전문업체들은 신기술 적용으로 이들은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옥도(동일산드로 부장)는 IPS·ESM에 관심을 시장은 IPS에서 시작해서 IPS로 옮겨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보안시장에서 IPS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는 것이다.

이제껏 IPS가 지금을 받았던 것은 2003년 1.25 대란 이후 본 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 높아진 것에서 IPS 시장이 주춤거리게 했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시장리서치 업체의 조사 결과 IPS에 투자를 예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 이후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제기하면서 시장이 한때 IPS 설치를 시작는 않았다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IPS 개발업체들의 노력은 침입탐지 기능이 강화와 차단수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선 대부분 IPS에 시장이 갖출 경우 침입을 탐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니멀한 탐지능력을 추가하고 있으며, 제품 전송시장에 의하는 방법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 프로세서(NPU)를 장착는 속도향상 노력을 지속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서 IPS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도가 탐지한 공격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달하고 관리에 관련된 노드에서 응용한 보고체계를 고려시켜 시스템 확산을 위는 IPS 연동기술과 같은 다양한 부가기능에 개발하고 있다.

송옥도(ESM-전문업체)는 ESM 기존 보안제품들과 로그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수동적인 관리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능동형 기능을 추가 하면서 '똑똑한' 시스템으로 거듭나면서 시중에 등장하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의 경우 자사의 로그DB와 연동하는 방법에서 보안장비 등을 제외해 무리없수 효율성과 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보안장비에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기능 확장시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제품이 EDM 솔루션과 연동해 보안 위협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과 능동적인 실물 통제와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국시스템 최근 관계 설명, 정부 국산소프 제품 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선보였으며, 이를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솔루션과 통합해 유형의 소 관련에 효한 대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시함수보는 자사의 ESM 기술을 기반으로 위협관리시스템(TMS)을 개발, 공격에 위협과 정책조사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제공해 내부 IT 인프라에 적용함으로써 사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을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적인 정보보호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식기자(디지털타임스)
dokang@dt.co.kr

시큐어컴퓨팅 | **사이트세안DIG2**

최상위 보안등급 평가인증 획득

시큐어컴퓨팅(고대 www.secure-computing.co.kr 대표 이상철)의 '사이트세안 DIG2'는 IDC에서 평가한 UTM의 기능인 방화벽, IPS, 바이러스월을 비롯해 웹 방화벽, 컨텐, 안티스팸, 웹 필터링, 그리고 IPSec 및 SSL VPN 기능을 한 대로 장비에서 구현한 제품으로 한국형 네트워크 환경실정에 맞춰 개발되었다.

사이트세안DIG2는 상업용 보안제품이 없을 수 없는 최상위 보안등급인 EAL4+CC 평가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단일 관리 콘솔화를 통해 동일 제품라인상 방화기능을 제공하며, 그밖에도 웹 필터링 기능 뿐 아니라 웹 기반 관리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또 XML·SOAP·SQL 인증공격, URL 공격, 웜 바이러스 스팸메일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상황을 필요로 하는 공공, 금융, 중소기업 CIO의 시장은 물론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요구에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시큐어컴퓨팅은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RSA 시큐리티 콘퍼런스를 통해 기존 엔터프라이즈 장비에 부가하는 보안장비 인증상품 그리고 차세대 방화벽 라우팅으로 가격을 낮춘 장비에 4개 모델(1200, 2200, 4200, 5200)과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겨냥한 6개 모델(1200, 2200, 2200, 4200) 등 총 10개의 사이트세안DIG2 제품을 선보였다. 또 한국시장에는 하나 그룹에 이들 제품을 선보였다.

이상철 시큐어컴퓨팅 한국지사 사장은 "한국시장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진 기능, 상위인증과 가격경쟁력 기반으로 위주로 보기를, 인터넷뱅크와 홈쇼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는 국내 보안시장에서도 큰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큐어컴퓨팅은 고객 요구에 따라 UTM 외에도 인증 솔루션, 웹 필터링 솔루션 등 제품의 폭을 넓히는 전략으로 한국시장에서 비즈니스를 가속하고 있다.

아엔마일 | **ASAP 8.5**

어디서나 손쉽게 백 커넥트 접근

아엔마일(www.asapmail.com/kr)이 본 월 최초 VPN 솔루션인 'ASAP 8.5'는 특히 출장 중인 스마트 비즈니스 마이에게 최초로 적용해 이다이나 손쉽게 TCP/TCP-IP 프로토콜, 그리고 가상사설망(VoIP)과 같은 세 가지의 Back Covers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관리된 제어 및 보안 기능을 장점인 제품이다.

사용자들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클라이언트 관리에서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관리 이다 인터넷 연결 보안 또는 사용자에서는 그리고 인증에서는 이 시나리오 간을 관리하기 위해 연결할 수 있다.

기존 네트워크 관리업체들이 IPSec VPN 솔루션에 사용하는 관리에서 비상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실행되는 프로토콜의 기능이 없어 보안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제한을 위험성이 내재해 있으며, SSL VPN 역시 별도의 경제 변경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이번에 발표된 ASAP 8.5는 모든 접근 방식과 사용자, 기종 및 장비에 대해 한번 접속이 관리와 프로젝트 변경 없이 애플 수행해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다고 아엔마일측 설명했다.

또 다른 VPN 솔루션 구축으로 모든 원격 접근허용을 관련해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 증가와 효율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아엔마일 관계자는 "글로벌하게 국내시장에서도 SSL, VPNXX 원격지로도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번은 주식에 앞서 3~4년가 클라이 한국지시를 상업용 제품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국시장에서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엔마일은 최신 솔루션 출시에 앞서 올해 3월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IPSec 또는 SSL VPN 솔루션을 아엔마일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내년 말까지 제품을 20%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 | **스파이더 TM**

국내 첫 국정원 보안성 검토 승인

이글루시큐리티(www.igloosec.co.kr 대표 이재준)가 개발, 공급하고 있는 통합보안관리 솔루션인 '스파이더 TM(Threat Management)'은 일정한 경계 하에 수단을 보안장비에 통합관리는 물론,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 보호를 위한 위협관리 등을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규정의 보안위협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위협 시나리오 개발의 비용 효과적인 대응 실계, 구현 및 운수 평가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과 통제를 수행하는 지원해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DDM 해시기술 등 최신 최근 확보된 일시간 보안 감시 방법에 적용했으며, 이를에서 제품으로 국가정보보호센터 국가중 최고보호시스템 보안의 검토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회사측은 스파이더 TM은 인증보호 기능, 사용자 관리방식 우수하며, 특히 최대 관리자 중 하나인 이기종 보안솔루션간 정보연관성 분석에서 상당한 발전이 보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최대 연동 솔루션 보유자 보유 TMOS 이상의 이벤트 처리 능력이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현재 보안 제품은 '스파이더 TA'를 개발중에 이어 접근에 연동 기능한 차세대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연내에 고객이 이보은 요구 부합된 최고보호 지능화된 새로운 DDM 제품인 '스파이더 X'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글루시큐리티의 사장은 '이글루시큐리티는 해외 고객사를 상대, 고객 최고 요사를 심사해 고객 요청사항을 반영한 제품 개발에 노력해왔다'며 '계속 해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고객 DB 연속 프로세스들에 대한에 사용 중심으로 한 일정한 관리활동을 펼치고, 최근 활발한 유지업을 보여고 있는 비즈니스 그룹 DDM 등 장비로 수주에 노력하는 한편, 그밖의 해외한 고객사들에 대해도 출장에 관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칙바이러스 철벽방어 '올해 기대주'

SSL VPN과 방화벽라이언 보안 솔루션은 주목받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주류에 오르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SSL VPN의 경우 미완의 대기 라는 평점까지 수년 째 기술임만 보여준 채 기대감을 증폭시켜주지 못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몰려 변화되고 있는 보안환경에 따라 SSL VPN과 방화벽라이언 보안 솔루션은 주도적인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홈페이지 대량변조 등 해킹사고 효과적 대응

설치부담 없고 관리도 쉬워 시장활성화 기대

◆ 방화벽 기대주 SSL VPN=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간에 인증된 통신을 위해 넷스케이프가 개발한 프로토콜인 SSL은 웹 브라우저에 기본 탑재돼 있어 손쉽게 VPN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별도의 SSL 전용장비를 설치하는 별도의 설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의 어려움, 사용자의 다양한 운드웨어와 운영체제 때문에 빚은 설치의 어려움 등 IPSec VPN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SSL VPN이 기대만큼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VPN의 주 원도를 본사사간 연결에 맞추면서 이기만 외부인들 원격접속 대상에서 제외해 SSL VPN의 가치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가 SSL VPN 시장이 열리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유제시스템은 VPN 클라이언트와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사용자의 접속과 기업이 해외진출 증가에 주력해 근무, 단독 근무 도입에 따라 네트워크 관리업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SSL VPN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태 유제시스템 사장은 "SSL VPN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 개화될 것"이라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실시에 따라 웹 기반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체들 중심으로 큰 매력이 있으며 솔루션으로서의 수요도 폭발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엔터넷은 올해 한국이 일본, 호주와 함께 SSL VPN 시장 선진이 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3분기에 한국지사를 설립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맞는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IDC도 별도의 기업보안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웹 상에서 간편하게 접속 가능하다는 SSL VPN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출 구원 투수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은 지난 2003년 하반기 시장 개화기만 해도 지난해까지 폭발적인 성장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업무의 웹 소프트 시대와 관련 업체가 본 홈페이지 대량 변조 사고 등 잇단 해킹사고로 인해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함께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은 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설정 오류에서 기인한 취약점과 개발자들이 웹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낸 소스에 내포돼 있는 취약점을 찾아 분석하고, 잠재적 취약점을 기반으로 자체 문제를 설정하며, 서버 기반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HTTP 요청을 감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방화벽이나 IPS 등 기존의 네트워크 계층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이를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식기자(DONG@ZDNETKOREA.COM)
dskang@zdt.co.kr

주니퍼네트웍스 | 넷스크린 ISG 2000

방화벽·IPS·VPN 기능통합

한국주니퍼네트웍스(www.kr.juniper.net 대표 강덕준)의 통합보안 게이트웨이 제품인 '넷스크린 ISG 2000'은 기가스크린2 이라는 주니퍼의 차세대 아키텍처와 고속 마이크로프로세서, 애드온(add-on) 보안모듈 등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방화벽, 딥 인스펙션(Deep Inspection), VPN, IPS 기능을 통합했다.

이 제품은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및 기존 최신 위협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며, 최대 2Gbps 처리용량을 제공한다.

주니퍼는 특히 방화벽 및 VPN에 IPS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업고객들이 서버팜, 게이트웨이, 중요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층을 네트워크에 덧붙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다가올 통합보안 플랫폼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략이다.

주니퍼는 이 제품이 주니퍼 스크린OS 위 다이나미 라우팅, NAT 라우팅 구축 옵션과 같은 네트워킹 기능을 기반으로 해 네트워크 전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또 SSP 프로토콜 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VoIP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방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 레벨 VoIP 보안기능을 보완하고, 이동 콘시큐리티 수행하는 멀티 레벨 공격 방지 기능을 통해 고객의 오퍼레이팅 효율화시키고 있다. 주니퍼는 전문 보안팀을 통해 고객들에게 스파이웨어 방어 서명을 주축 애플 업데이트해 최신 해킹기술 등 기존 위협으로부터 총 4대 최고제품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넷스케일러코리아 | 넷스케일러 9000

암호화 처리량 초당 최대 20Gbps

넷스케일러코리아(www.netscaler.com 대표 신윤탁)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제품인 '넷스케일러 9000'은 높은 처리 성능의 웹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의 종단간(end to end) 보안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초당 최대 20Gbps 암호화 처리량(Throughput)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특히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기업,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네트워크 확장성이나 비용증가 부담 없이 고속 암호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Tcp/IP TCP/IP 프로토콜 멀티플렉싱,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보안을 위해 접속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서버의 CPU 처리를 덜어주기 위해 하드웨어 기반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넷스케일러 9000은 이밖에도 웹 구축을 위한 로밍 쉽터링, 애플리케이션 접근 관리 방어, 네트워크 접근 관리 방어, 서지(Surge) 방어, 무선보안 게이트웨이, 분산된 기동성, SSL 가속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회사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스루가 시장의 경우 향후 초고속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 역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보다 폭넓게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 파트너사인 ATM네트워스, KDC정보통신 외에 레이시스템즈와 파트너십을 추가해 영업 협력 및 고객지원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및 유통, 기업, 금융, 대학 등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지오텍 | 실브레이커 IPS

패킷 손실없이 회선속도 보장

지오텍(www.zeocom.co.kr 대표 한상진)의 '실브레이커 IPS'는 전용 프로세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IPS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레이어7 필터링 시에도 패킷 큐기와 처음부터 수에 무관하게 패킷 손실 없이 회선속도(Wire Speed)가 보장되는 제품이다.

지오텍이 국내에서 처음 적용한 하이브리드 타입 네트워크 프로세서 방식의 CPU+콘텐츠 프로세서인 이번 제품 프로세서가 패킷 분석, 보고 서보, 관리용 부분으로 구분, 전자간 접근에 최적화된 프로세서가 분담 처리하는 구조로, 프로세서의 장점을 조합해 대용량 트래픽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과 보안 상품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또 레이어2와 레이어 4에서의 필터링 성능 뿐만 아니라 레이어7 필터링 시에서도 회선속도를 보장하는 높은 처리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제품이다.

지오텍측은 소프트웨어를 지금 운영 설계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 하드웨어 관련 특허를 갖고 있으며, 가격이 낮은 제품이 이번 성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관계자 IPS는 이미 한국전력, 국세, 경기도청, 파워콤 등 50여 개의 레퍼런스를 확보했으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해외를 겨냥한 글로벌 마케팅 및 시장개척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상진 지오텍 사장은 "향후 IPS 시장은 통합보안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며, 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획기적인 기술로 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컴정보 | e펜타곤 TMS

글로벌 침입정보 실시간 제공

제이컴정보(www.jcom.co.kr 대표 문재원)가 지난 1월 선보인 TMS인 e펜타곤 TMS'는 글로벌 위협과 침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제공해 내부 IT 인프라에 적용함으로써 사전에 능동적으로 위협을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정보보호 관리기술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제이컴정보는 e펜타곤 TMS가 BSM을 기반으로 해 기존 IDS 기반의 TMS와 달리 ▲내부 IT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 수집 분석(보안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의 중복(유해트래픽, 시스템 취약점 정보, 보안장비의 이벤트 정보), ▲관련 상수준·업근체계, 네트워크 다이어스 제어에 차별된다고 설명했다.

e펜타곤 TMS는 네트워크 단위 취약점뿐 아니라 보안 이슈 관리인스, 시스템 단위의 위협을 종합하고 글로벌 정보와 비교·분석해 대응책을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또 특정 해킹을 기반으로 시스템으로의 접근통제 및 네트워크 노드를 제어해 트래픽 또는 장애가 전체 IT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관리 및 관제 시스템 규모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준 없이 하드웨어 확장만으로 대규모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제이컴정보는 이밖에 위협관리 솔루션 기술을 기반으로 제어관리시스템(PMS), 설치 배포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보안 솔루션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위협 및 위협 관리 솔루션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